
인류세에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 **

현남숙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인류세의 지식과 인간중심주의
- III.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
- IV. 다종 간 지식: 그 실천과 쟁점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다종 간 지식의 이념을 제안하면서 그에 연관된 개념적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종 간 지식은 인간 종과 다른 종의 응답에서 생겨나는 공구성적인 앎을 의미한다. 다종 간 지식은 지식의 주체와 대상에 관한 인간중심적 개념에 도전하고, 지식의 방법 및 내용 나아가 윤리 면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한다. 즉, (i) 관계적 주체 (ii) 종 간 앎의 공구성 (iii) 앎의 비대칭적 상호성 (iv) 얽힘에서 나오는 응답 윤리를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다종 간 지식의 모색은 인류세에 다종의 공생을 위한 실천적 인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다종 간 지식, 인류세, 관계적 주체, 비대칭적 상호성, 응답 윤리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4559).

**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기후인문학연구소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비인간에서 에너지로의 전환: 서양과 동양의 교차점에서")(2025.10.17)에서 발표되었다.

1. 들어가는 말

철학은 당대의 시대상과 당면 문제에 관심을 가질뿐더러, 그것의 해결에 개입한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휴먼 조건 특히 기후 위기, 멸종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인류세로 대표되는 문제 상황은 이러한 시대상의 좌표를 제공한다. 파울 크루첸과 유진 스토머가 제안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지질학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인류가 축적해 온 의미와 경험의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가 세계와 맺는 새로운 관계를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철학은 이러한 인류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모든 증대한 현상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세 역시 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 철학 자체가 과학기술의 부상에 증대한 기여를 했다. 사물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탐구하여 개별성을 초월하려는 철학적 열망은 결국 자연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낳았다. 그런데 이는 근대에 이르러 각 문화의 다양한 생태계적 연관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철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¹⁾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신유물론(neo-materialism)은 철학의 새로운 좌표를 그리는 데 주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신유물론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들의 연결성과 행위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정신/물질, 문화/자연의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물질에 행위자성을 부여하는 내재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특히 지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지식(posthuman knowledge)’은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휴먼 지식 생산은 인간 아닌 대상을 탐구 주제로 삼는 것을 넘어 개념적, 방법론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²⁾

1) Richard Polt and Jon Wittrock (2021), *The Task of Philosophy in the Anthropocen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x.

2) 로지 브라이도티 (2023), 『포스트휴먼 지식 - 비판적 포스트인문학을 위하여』, 김재희·송은주(역), 아카넷, 124쪽.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그 내용이 어떠한 인간중심주의의 토대를 넘어서 새로운 지식의 구상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버금가는 일”³⁾일 것이다.

이 글은 인간중심적 세계 이해가 갖는 난점을 제기하면서 다종 간 지식에 관한 지도를 그려보는 것(cartography)⁴⁾이다.⁵⁾ 지도 그리기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유동적으로 좌표를 그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신유물론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세계를 정해진 범주대로 이해하는 대신, 관계와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실천적 사유 방식이다.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는 인류세에 인간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비인간 타자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의 새로운 위치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다종 간 지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II장에서는 먼저, 인류세의 지식의 배경과 그것이 초래한 문제들을 인간중심적 지식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중간 부정의 문제를 통하여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다종 간 지식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신유물론의 여러 개념들을 도입하여 누가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즉, 삶의 주체는 개별화된 종이나 개체가 아닌 관계적 주체임을, 삶의 방법은 인간의 대상 인식이 아닌 두 종 간의 공-구성적 과정임을, 삶의 내용으로서 이는 종간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함을, 그리고 삶의 윤리는

3) Lorraine Code (2006), *Ecological Thinking: The Politics of Epistemic 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3.

4) 지도 그리기는 권력/지식의 계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각 이론이나 사상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Rick Dolphijn and Iris van der Tuin (2012),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Open Humanities Press, p. 113.

5) 필자는 「인류세의 위기와 다종 간 지식의 요청: 애나 칭, 쏘 반 두렌, 도나 해러웨이의 인간-너머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2025)에서, 다종 간 지식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그것의 후속 연구로 다종 간 지식의 조건을 삶의 주체, 방법, 내용, 윤리 면에서 구상해 보는 것이다.

6) 이 때 삶의 주체로는 인간처럼 의식적 특성을 가진 인지자(conscious cognizer)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식물과 같은 비의식적 인지자(nonconscious cognizer)도 포함된다. 캐서린 헤일스는 인간 외에 동물, 식물, 기계도 인지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고(thought)’ 대신 좀 더 폭넓은 ‘인지(cogn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캐서린 헤일스(2025),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 커뮤니케이션북스, 36~42쪽.

존재론적 얽힘에서 비롯된 응답의 윤리임을 제시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다중 간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실천적 지점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쟁점에 대해 성찰해 볼 것이다.

II. 인류세의 지식과 인간중심주의

인류세는 인간이 독자적인 지질학적 힘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사회적·자연적 시스템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도 상당하다. 물론 인류세에 대한 적지 않은 반대자들도 있지만, 인류세 논의는 인류세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그 의미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류세는 이제 사회-자연적 관계의 상태이자, 이러한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인식론적 도구가 되었다.⁷⁾

인류세는 주로 인간의 자연 지배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그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인류의 지식, 특히 근대의 과학적 지식관이 자리한다. 데카르트의 물질관은 신유물론이 비판하는 전통적 유물론의 대표적 입장이다. 전통적 유물론은 데카르트 인식론에 기초한 결정론적·기계론적 물질관을 고수한다. 거기에서 물질은 한갓된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며,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위하거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다른 물질과의 우연한 상호작용의 산물로 여겨진다. 한편 욕망이나 의지를 지닌 인간은 결정론적·기계론적 물질관에서 벗어난 자유의지를 갖는 유일한 존재로 간주된다. 인간의 이러한 존재론적 특권은 이후 자연/문화 이분법 및 인간중심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인간/자연 이분법은 인간중심주의를 가져온다. 인간중심주의는

7) Manuel Arias-Maldonado (2019), "The "Anthropocene" in Philosophy: The Neo-material Turn and the Question of Nature", Frank Biermann and Eva Löwbrand(eds.), *Anthropocene Encounters: New Directions in Green Political Thin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0.

다른 유기체들(더 나아가 유기적이든 무기적이든 혹은 무생물이든, 세상을 채우는 수많은 존재들)에 비해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입장을 말한다. 인간/비인간이라는 첫 번째 이분법으로부터 사회/자연, 마음/몸(고전적 데카르트적 이원론), 주체/객체와 같은 수많은 다른 이원론적 구분들이 파생된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예외주의를 낳는다. 우리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면,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다룰 권리를 가진다고 가정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해 윤리적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만든다.⁸⁾

인류세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은 바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를 토대로 하여 성립한다. 티머시 모턴은 인류세의 지식을 농업 로지스틱스(agrilogistics)라고 명명했다. 농업 로지스틱스는 1만 2천 년 전에 인간이 전지구적 농업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초객체(hyper-object)를 말한다. 인간은 농사와 사냥에서 계절적 변동을 줄이기 위해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농업 로지스틱스가 가부장제, 사회계층구조, 인간-비인간 상호작용의 피드백 고리로 이어졌다.⁹⁾ 특히,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인류세를 초래한 과학 및 지식 전반은 인간을 그 주인공으로 두면서 나머지 존재들을 도구화하였다.

인류세가 분명히 보여준 것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농업로지스틱스와 같은 인간중심적 지식 체계가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그리고 비생명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점점 더 재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인식론적 질문들은 ‘덜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간의 주변부에 있는 존재들이 갖는 앎을 간과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설명은, 생명체를 앎의 능동적 주체로 보기 보다는 수동적인 지식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고착화한다. 문제는

8) Carlos Jesus, García-Meza (2021), “A Portable Philosophy Toolkit for the Anthropocene”, Carrillo, Francisco J., Koch, Günter(eds.), *Knowledge for the Anthropocen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dward Elgar Publishing, pp. 11~12.

9) 티머시 모턴 (2024), 『어두운 생태학: 미래 공존의 논리를 위하여』, 안호성(역), 갈무리, 83~87쪽. 모턴의 이러한 입장은 인류사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한 면이 있지만, 인류 문명의 인간중심적 특징을 보여주고자 한 취지는 잘 전달된다.

이러한 관점이 동물의 삶은 물론이고, 그들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다.¹⁰⁾

일례로, 인류세의 지식 관념과 그것에 의한 자연 침해는 동물의 삶에서 부정의를 초래한다. 도시에서의 새들은 도시의 야간 조명 때문에 야간 비행에 지장을 받는다. 나아가 몇몇 멸종 위기종인 새들은 인간이 변화시킨 기후 위기로 자신의 항로를 잃거나 장시간 비행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앤드류 로페즈는 생태계에서 인간이 영향을 미쳐 생겨난 동식물의 인식적 교란으로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들에 주목한다. 기후 변화는 “그린 웨이브(green-wave)”의 일정을 변화시켜, 이동 동물들의 이동 시기를 교란시킨다. 이는 인간의 환경 교란은 다른 종들의 방법지(know-how)의 전승을 훼손한 결과이다.¹¹⁾

이러한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주체와 대상 객체의 존재론적 분리와 인간 우월의 논리에 근거한 존재론·인식론·윤리학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의 행위자들과 상호의존적이고 함께 세계를 살아가야 함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인류세에 다종 간 지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III.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

‘다종(multispecies)’¹²⁾은 도나 해러웨이가 *When Species Meet*(2008)

10) “Knowing Life: The Ethics of Multispecies Epistemologies”, Nov 3–Nov 5, 2022, (<https://uchri.org/events/knowning-life-the-ethics-of-multispecies-epistemologies/>, 2024.09.10. 접속).

11) Andrew Lopez (2023), “Nonhuman Animals and Epistemic Injustice”, *Journal of Ethics and Social Philosophy*, 25(1), pp. 154~155.

12) 다종 간 지식(multispecies knowledge)에서 ‘다종’은 기존의 분리된 종(species)에 대비되는 종의 복수성과 연결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아드리안 자레츠키는 multispecies, interspecies, transpecies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multispecies(다종)은 인간의 좋은 삶을 해치지 않는 한, 다양한 종과 병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interspecies(간종)은

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다종 간 정의(multispecies justice)를 말하면서 ‘다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¹³⁾ ‘다종’이라는 개념은 ‘비인간(non-human)’처럼 인간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구의 지배적 인식론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인간예외주의나 인간중심주의에서 좀 더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다종’은 종 자체를 관계적 분석의 단위로 주목하는데, 여기에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 바이러스, 균류도 포함된다. ‘다종’은 인간이 함께-되어가는 다양한 유기체들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전면에 드러내며, 이 유기체들 또한 생물학적·문화적·역사적·정치적 삶을 가진 존재들임을 상기시킨다.¹⁴⁾

이러한 ‘다종’이란 용어는 주로 다종 연구(multispecies studies)에서 쓰이고 있다.

포괄적 용어로서 다종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학제적 접근들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다종 민족지학, 민족동물행동학(ethno-ethnology)¹⁵⁾, 생명 인류학, 인간 너머의 인류학, 멸종 연구, 인간-너머 지리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들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 함께 얽혀 살아가며 앎을 나누는 여러 생명 형태들에서—윤리적, 정치적, 인식론적으로—무엇이 문제시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는 공통된 관

둘 이상의 종의 관점이나 경험을 결합하여 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transpecies(횡단종)는 생명체의 변영에 중요한 종 간 상호작용의 방식과 호혜적 풍요의 관계에 방점을 둔다. Zaretsky, Adrian (2024), “Interspecies, Multispecies, or Transpecies Design?”, Adrian Zaretsky and Michael Zaretsky(eds.), *Transpecies Design: Design for a Posthumanist World*, Routledge, pp. 18~19.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의 유의미함에도 이 글에서는 multispecies studies와 맥을 같이 하기 위해 ‘multispec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 13) 도나 해러웨이 (2022), 『종과 종이 만날 때 - 복수종들의 정치』, 최유미(역), 갈무리, 346쪽.
 14) Catherine Price, Sophie Chao (2023), “Multispecies, More-Than-Human, Non-Human, Other-Than-Human: Reimagining Idioms of Animacy in an Age of Planetary Unmaking”, *Exchang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10(2), p. 180.
 15) ethno-ethnology는 동물행동학(ethnology)과 민족지(ethnography)가 결합된 것으로, 혼종적 인간/동물 공동체를 다룬다. Dominique Lestel, Florence Brunois, Florence Gaunet (2006), “Etho-ethnology and Ethno-ethnology”, *Social Science Information*, 45(2) 참고.

심으로 묶여 있다.¹⁶⁾

다종 연구에서 ‘다종 간 지식(multispecies knowledge)’은 ‘다종 간 인식(multispecies epistemology)’, ‘다종 간 앎(multispecies knowing)’, ‘함께 알기(knowing with)’ 등과 같은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다.¹⁷⁾ 이러한 개념들은 표현은 달라도 인간만을 ‘지식의 주인’으로 여기는 환상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인 앎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종인류학이나 인간-너머의 지리학에서 다종과 관련된 사례 연구는 진일보한 데 비해, 다종 간 지식의 개념은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종 간 지식은 인간 지식과 달리 개념과 방법론을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일반화는 것이 자칫 또 다른 인간중심적 인식론의 거꾸집을 씌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 다종 간 지식의 체계화에 도움이 될 만한 개념들의 연결, 즉 지도 그리기(cartography)를 통해 다종 간 지식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질문-즉, 누가 아는가(앎의 행위자), 어떻게 아는가(앎의 방법), 무엇을 아는가(앎의 내용) 그리고 왜, 무엇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가(앎의 윤리)로 나누어 논의해 보겠다.

1. 앎의 주체: 관계적 주체

누가 아는가? 전통적 인식론에서 앎의 주체(knowing subject)는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이성적 행위자로서, 의식적일뿐더러 자기의식적인 자아로 이해되어 왔다. 데카르트의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데, 표상주의란 인간은 외부 사물을 직접 지각하지 않고,

16) Thom van Dooren, Eben Kirksey, Ursula Münster (2016), “Multispecies Studies: Cultivating Arts of Attentiveness”, *Environmental Humanities*, 8(1), p. 5.

17) ‘multispecies epistemology’는 Brianne Donaldson 등의 “Knowing Life: The Ethics of Multispecies Epistemologies”(2025)에서, ‘multispecies knowing’은 Niloofar Solhjoo의 “Knowing within Multispecies Families: An Information Experience Study”(2024)에서, ‘knowing with’는 “Outi Rantala, Emily Höckert, Heli Ilola의 “Knowing-with’ in the Era of Anthropocene”(2019)에서 사용되었다.

그것들의 관념(idea)을 통해 지각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얇은 데 카르트적 주체의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관념의 놀이가 아니라, 세계와의 물리적 관여의 실천이다. 즉, 인식 주체가 세계의 위나 밖에서 세계(대상)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로 세계의 연결된 일부로서 얇에 관여한다. 행위자-실재론(agential realism)이라 불리는 캐런 버라드의 이러한 입장은 인식하는 자와 인식 대상 사이의 관계를 전통 철학의 모델과 다르게 본다. 즉 인식하는 자를 자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주체라고 가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 자체가(대상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내부-작용(intra-actions)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¹⁸⁾

이처럼 인식하는 자와 인식 대상의 경계를 허무는 버라드의 관계적 주체 개념은 브라이도티의 ‘횡단적 자아(transversal selves)’, 스테이시 앨리모의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해러웨이의 ‘반려종(companion species)’과 같은 개념과 공명한다. 브라이도티의 횡단적 자아는 얇의 주체와 대상을 연결하는데, 그는 생기론적 유물론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자기조직적인 물질성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배치로서의 주체성 개념을 제시한다.¹⁹⁾ 앨리모는 기존의 주체와 객체,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을 허물기 위해 횡단-신체성을 제시한다. 횡단은 서로 다른 장소들을 가로지르는 운동으로 “횡단-신체성은 인간 몸, 비인간 생명체, 생태계, 화학 작용물, 그리고 여타 다른 행위자들의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반갑지 않은 작용들을 인정하는 유동적인 공간을 열어 준다.”²⁰⁾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특히 동물 간의 관계를 각각의 종이 아닌 반려종으로 개념화한다. 반려종은 관계성의 패턴으로 “파트너들은 관계하기에 앞서 존재할 수 없다.”²¹⁾ 모든 종류의 종은 세상의 주체와 객체 형성의 얽힘의 결과로, 관

18) 버라드는 인식 주체와 객체는 본래 연결되어 있지만,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구획하는 물질-담론적 실천, 곧 경계-제작적(boundary-making) 실천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는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19) 로지 브라이도티 (2023), 78쪽.

20) 스테이시 앨리모 (2018), 『말, 살, 흙 -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역), 그린비, 19쪽.

계성은 분석 가능한 최소한의 패턴이고 파트너와 행위자는 관계성에 의해 생겨나는 산물이다.²²⁾ 이처럼 횡단적 자아, 횡단신체성, 반려종은 모두 앎의 주체를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존재론을 공유한다.

2. 앎의 방법: 지식의 공구성

그렇다면 관계적, 횡단적 주체는 서로를 나아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간 동물행동학에서는 데카르트적 표상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대상화된 동물 이해, 예를 들어 객관적 관찰과 같은 방법을 선호했지만, 다종 간 지식은 인간의 동물 이해에서도 대상의 행위자성과 관계성을 고려한다. 표상주의에 대조되는 앎의 방법은 전통적 개체주의 형이상학이 가정하는 종 간의 분리에 기초한 대상화된 앎과 달리, 종 간의 연결에 바탕을 둔 지식의 공구성, 즉 종과 종의 함께 알기(knowing with)라는 특징을 갖는다.

버라드는 관찰 대상과 관찰 행위자는 특정한 수립행위(enactment)를 통해 공구성(co-constituted)된다고 본다.²³⁾ 그는 양자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설명하는데 원자가 먼저 존재하고 인간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와 실험 장치가 맺는 관계에 따라 인식의 내용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인식과 존재의 결합, 즉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자와 같은 미시 세계만이 아니라 사회와 같은 거시 세계에서도 통용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계열의 인식 방법론과 상통한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 속의 두 행위자가 앎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애나 칭의 ‘알아차림의 기술(arts of noticing)’, 뱅시안 데스프레의 ‘체화된 공감(embodied empathy)’, 도나 해러웨이의 ‘응답-능력(response-ability)’

21) 도나 해러웨이 (2022), 29쪽.

22) 도나 해러웨이 (2022), 40쪽.

23) Karen Barad (2006),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p. 154.

이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칭은 숲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송이버섯을 채취할 때 ‘알아차리기’라는 앎의 방법에 주목한다.²⁴⁾ 알아차림의 기술은 근대의 과학적 관찰과 대비되는 방법으로 인간-송이버섯-숲이 각각 다르지만 서로 조응하는 복수적 시간의 리듬을 상호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²⁵⁾ 데스프레는 종과 종 간의 앎의 방법으로 체화된 공감을 제시하는데, 체화된 공감은 비인간 타자와의 체화된 소통을 통해 부분적 친화성(partial affinities)의 기반 위에 생겨나는 창의적 조율방식이다.²⁶⁾ 체화된 공감은 ‘동물과 함께 친화성을 구성하면서’ 인간이 동물처럼 느끼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오랫동안 함께 서로 몸을 조율해서 가능한 결과이자 상호 간의 부분적 친화성에 의한 결과이다.²⁷⁾ 해러웨이는 앎의 주체로서 인간과 비인간 타자 간의 응답-능력을 타자 이해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응답은 자기유사성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두 파트너들 간의 공구성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²⁸⁾

알아차림의 기술, 응답-능력, 체화된 공감은 그동안 지식이 개체 단위의 세계 이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말한다는 점에서 버라드의 생각과 상통한다. 다종 간 지식을 얻는 방법은 이처럼 인간과 관계맺고 있는 다른 종 및 장치들과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물론 이러한 공구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역사-물질적 관계에서 부분적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지식 구성을 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24) 애나 로웬하우스 칭 (2023), 『세계 끝의 버섯』, 노고운(역), 현실문화, 283쪽.

25) 애나 로웬하우스 칭 (2023), 53쪽.

26) Vinciane Despret (2013), “Responding Bodies and Partial Affinities in Human-Animal Worlds”, *Theory Culture & Society*, 30(7-8), p. 71.

27) Vinciane Despret (2013), p. 61.

28) 도나 해러웨이 (2022), 93쪽.

3. 앎의 내용: 비대칭적 상호성

다종 간 지식에서 함께 알기의 결과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종 간 지식은 다종 간에 마치 서로의 앎을 대칭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종과 연결 속에서 지식을 함께 구성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 종의 차이나 종과 종이 얽혀서 살아온 환경적 차이를 초월한 종 간 지식이 가능하지는 앎을 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종 간에 상호주관성이 없음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접촉지대에서, 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류한다면, 두 종의 서로에 대한 앎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해러웨이는 『종과 종이 만날 때』에서 어질리티 게임을 소개하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미리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체화된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때의 앎은 파트너 관계에 있는 서로에 대한 체화된 앎인 동시에 서로 중첩되는 환경세계에 대한 차이를 가진 그러나 유의미한 인식이기도 하다. 응답은 자기-유사적 관계에서는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응답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대칭적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²⁹⁾ 유사하게 데스프레도 동물과 인간의 앎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적이라고 말한다. “체화된(인용자 추가) 공감은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신체들이 부분적인 관점에서 상호 조율하면서, 비대칭적이지만 상호적인(reciprocally though not symmetrically), 즉 서로의 지각 방식이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호적으로 서로를 재실행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³⁰⁾

종 간의 소통 과정을 ‘비모방적 나눔’으로 보고 그 결과물로서 앎의 내용을 ‘비대칭적 상호성’으로 특징지우면, 탈인간중심적인 세계 이해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는 주류 동물행동학처럼 관찰을 통해 대상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입장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객체지향존재론처럼 대상이 물러나 있어 비유나 추론과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비인간 존재

29) 도나 해러웨이 (2022), 93쪽.

30) Vinciane Despret (2013), p. 61.

자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입장과도 대조를 이룬다.³¹⁾

4. 얹의 윤리: 종들의 얹힘과 응답

우리는 왜 다른 종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 종 간의 연결과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응답하는 것은 단지 인지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맺음에서 비롯되는 윤리와 연결된다. 다른 종과 응답이든, 공감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비인간 타자 이해는 인간과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윤리로 주어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지구 위에서 태어나고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가진 존재로 혼자서는 존립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윤리는 원자적 개인의 도덕률이나 공리적 계산이 아니라 관계 맺음 속에 이미 내재해 있다.

이러한 얹의 윤리는 버라드의 ‘윤리-존재-인식론(ethico-onto-epistemology)’에서 그 분명한 성격을 포착할 수 있다. 버라드에게 타자는 알고자 하는 의식의 지향성에 앞서 이미 관계에 내재해 있다. 이러한 관계 맺음에서 책임이 따라 나온다. 책임은 인간의 세계 경험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 얹힘의 문제이며, 각각의 내부-작용이 이러한 얹힘들의 재구성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³²⁾ 즉, 윤리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한 책임이다.³³⁾ 이러한 윤리관은 해러웨이의 ‘응답-능력(response-ability)’ 개념에도 투영되어 있다. 반려종의 얹힘은 고통의 나눔이나 심지어 반려종의 죽음까지도 포함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다른 동물의 아픔을 비모방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은, [...] 윤리적 의무이고 실제 문제이고 존재론적인 열림이다.”³⁴⁾

31) 이언 보고스트는 『에일리언 현상학』에서 비유(metaphorism)를, 레비 브라이언트는 『존재의 지도』에서 추론(inference)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들은 이 글에서 다루는 연결적 존재론을 상관주의(correlationalism)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아직 인간중심주의의 잔재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32) Karen Barad (2006), p. 160.

33) Karen Barad (2006), p. 393.

34) 도나 해러웨이 (2022), 110쪽.

또한 자연-문화 상황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는 없지만 죽음은 불가피하므로,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더 잘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³⁵⁾ 이는 복잡성과 함께 사는 것, 즉 취약한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다종 간 지식의 윤리는 종 간의 얽힘에 따라 현재만이 아닌 과거, 미래와도 연결된다고 간주한다. 버라드는 “‘과거’와 ‘미래’는 세계의 지속적인 내부-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고 접혀 들어간다”³⁷⁾고 가정한다. 얽힘의 윤리는 과거와 미래의 물질적 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무를 갖는다. 이는 이미 주어진 과거를 변화시키거나 과거 행위의 결과를 고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 따라 과거가 변화에 열려있음을 의미한다.³⁸⁾

이는 기후위기로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재해석하는가에 따라 과거 자체가 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사건을 재해석하여 생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썸 반 두렌의 연구는 이러한 다종 간 얽힘의 관계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책임을 잘 보여준다. 반 두렌은 새들의 멸종을 연구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멸종에서 잃게 되는 것은 단지 현재 드러난 비행 경로에서의 고정된 개체군만이 아니라 그 종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가 언젠가 가능케 했을 미래의 모든 것이다. “이것들은 한 종의 생성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심원한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비행 경로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체의 비행 경로가 지닌 무게, 곧 고대부터 진화해 온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공간을 열어 두라는 윤리적 요구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³⁹⁾

35) 도나 해러웨이 (2022), 363쪽.

36) 도나 해러웨이 (2022), 108쪽.

37) Karen Barad (2010), “Quantum Entanglements and Hauntological Relations of Inheritance: Dis/continuities, SpaceTime Enfoldings, and Justice-to-Come”, *Derrida Today*, 3(2), p. 261.

38) Karen Barad (2010), p. 266.

39) Thom van Dooren (2014), *Flight Ways : life and loss at the edge of extin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p. 39.

IV. 다종 간 지식: 그 실천과 쟁점

1. 다종 간 지식의 실천

다종 간 지식의 실천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에서의 다종 디자인(multispecies/interspecies design)⁴⁰⁾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지식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다종 디자인은 둘 이상의 종을 위해 두 종이 함께 무언가를 설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종 디자인의 잠재적 적용 범위는 작은 물건, 제품, 그래픽 시각화에서부터 도시 경관, 시스템, 혹은 허구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⁴¹⁾ 디자이너들은 비인간 존재자의 지식을 존중하고 그것을 디자인 과정에 참여시킨다. 더 나아가 그들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목표 설정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 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비인간들은 미래 환경의 설계에 귀중한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관점을 지니고 있다. 많은 비인간 존재들은 등지 짓기나 댐을 통한 생태공학과 같은 종 간 상호작용과 문화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 이러한 지식을 디자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비인간에게도 이익을 주는 미래 다종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⁴²⁾

다종 간 지식의 실천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동물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샬럿 브레트너는 동물의 강제노동을 분석하면서 이들을 계약의 당사자로서 존중하려면 이들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체화된 지식이

40) 마사 너스바움의 『동물을 위한 정의』에서의 다종 공동체(multispecies community)나 도나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하기』에서의 테라폴리스(terrapolis)는 다종 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러한 공간에 다종 도시 디자인은 필수적일 것이다. 현남숙 (2025), 「다종 간 도시를 위한 정의의 모색과 실천 - 너스바움의 다종 공동체와 해러웨이의 테라폴리스에서의 다종 간 정의를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7(1) 참고.

41) Dan Parker, Kylie Soanes, Stanislav Roudavski (2022), *Interspecies Cultures and Future Design, Transpositiones* 1(1), pp. 189~190.

42) Dan Parker, Kylie Soanes, Stanislav Roudavski (2022), p. 188.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과 인간의 경우 계약서와 같은 언어적 정보에 근거하여 합의하는 반면, 인간과 동물의 경우 관계적으로 위치지어져 있는 감정적인 육체가 ‘합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진정한 합의는 실천, 즉 ‘체화된 기술(embodied skill)’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합의 모델은 단지 법적 서명에만 주목하지 않으며, 두려움, 분노, 혼란, 망설임, 불신 등의 체화된 표현 그리고 진정한 합의의 철회를 나타내는 징후에 지속적으로 응답할 것이다.⁴³⁾

동물은 육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선호를 알고 싶다면 체화된 행동 및 표현의 형태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합의에 관한 물음을 던진다면 동물을 우리의 세계에 끼워 맞추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동물이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⁴⁴⁾

2. 다종 간 지식의 쟁점

다른 한편, 다종 간 지식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이 정말 동물의 타자성을 존중하는 것인지, 이론화가 가능한지에 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비인간 타자에 관한 연구가 인간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인간중심주의의 가정 안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동물 연구에서 여전히 인간을 주체로 두고 동물을 타자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제인 베넷은 의인화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항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의인화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경계선을 흔들며, 외부 사물을 더 이상 자

43) 샬럿 E. 블래트너 (2023), 「강제 노동의 금지와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권리」, 『동물노동 - 중간 정의를 이야기하다』, 평화 등(역), 책공장더불어, 163쪽.

44) 샬럿 E. 블래트너 (2023), 163~164쪽.

신의 외부 환경이 아니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는 매미 울음 소리를 아기 울음소리처럼 느끼거나 플라스틱 지형도를 보며 손등의 정맥을 연상하는 것은 비인간에 대한 정교한 감수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⁴⁵⁾ 또한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응답하는 과정을 일종의 ‘동물-인간-형상화(therio-anthropo-morphism)’라고 부른다. ‘동물-인간-형상화’는 어떤 표현들은 형상화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것은 문화에 오염되어 있다는 신념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과학적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⁴⁶⁾ 동물은 행위적 은유를 통해 인간과 관계를 형상화하고, 인간은 이를 언어적 은유로 형상화한다. 물론 종 간 은유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실천은 인간중심적인 투사적 의인화와는 구분된다.

또한, 다종 간 지식이 이론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다종 간 지식은 기존의 과학이나 그것이 지향하는 객관성과는 다른 지향점을 갖는다. 반 두렌 등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과 실천들이 다종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야는 또한 다양한 다른 접근법들을 모색해야 한다.”⁴⁷⁾ 일례로, 애나 칭은 각 지역마다 숲의 개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찰하면서 지식의 비확장성을 강조한다. 확장성(scalability)이란, 특정한 지식·방법·체계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확장되는 특성을 말한다. 칭은 이에 반대하여 확장성 대신 조율(attunement)과 협력을 강조한다.⁴⁸⁾ 지식은 단일 모델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호응답과 얽힘을 통해 성립한다. 다종 간 지식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비확장적 지식을 추구한다. 물론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식의 비확장성은 커다란 단점일 것이나, 이것은 문제라기

45) 제인 베넷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역), 현실문화, 291쪽.

46) 도나 해러웨이 (2022), 440쪽. ‘therio-anthropo-morphism’은 한국어 번역본에서 ‘신중한 의인화’로 번역되어 있다.

47) Thom van Dooren, Eben Kirksey, Ursula Münster (2016), p. 8.

48) 애나 로웬하임트 칭 (2023), 279~280쪽.

보다는 기존의 지식 개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물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간 행동주의 동물연구에서 지향한 객관성은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즉 관찰자가 동물의 반응을 왜곡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데스프레는 이러한 방식이 동물을 수동적 객체로 환원시키고 더 나은 파악을 막는다고 비판한다. 과학자는 연구 대상과의 거리두기가 아닌 부분적 연결 속에서 오히려 상호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부분적 연결이란 인간과 동물 두 주체가 체화된 공감을 통해 상호적이지만 비대칭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연결점을 말한다. 이러한 조율은 주체, 대상, 상황마다 달라질 것이므로, 일반화된 과학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난점이 되기보다는 다종 간 지식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시대와 인간 지식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하다. 기후위기를 동반한 인류세를 지탱하는 인간중심적 과학적 지식은, 인류세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현재의 지식 실천과 제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질곡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앎의 방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 새로운 방향이란 지구 위의 존재자들의 관계 조건을 재정의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의 마련이며, 다종 간 지식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앎의 방식을 추구한다.

인류세는 부분적으로 인간중심적 지식 관념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설 지식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다종 간 지식의 조건을 개념적 지도 그리기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 다종 간 지식은 인간 종과 다른 종의 응답에서 생겨나는 공구성적인 앎을 의미한다. 다종 간 지식은 앎의 주체와 대상에 관한 인

간중심적 개념에 도전하고, 앎의 방법 및 내용 나아가 윤리 면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를 통해 (i) 관계적 주체 (ii) 종 간 앎의 공구성 (iii) 앎의 비대칭적 상호성 (iv) 얽힘에서 나오는 응답 윤리를 그 특징으로 도출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인류세의 위기에 다종 간 지식의 개념적 지도 그리기를 통해 그러한 지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비의식적 인지자 중 유기적 생명체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을 연결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역할에 관한 추가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과 기술적 행위자의 인지적 연결은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⁴⁹⁾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 또한 다종 간 지식의 지도 그리기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 글에서 다루어 지지 못하여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49) 헤일스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해 '인지 집합체(cognitive assemblag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캐서린 헤일스 (2025), 188쪽.

참고문헌

- 도나 해러웨이 (2022), 『종과 종이 만날 때 - 복수종들의 정치』, 최유미(역), 갈무리.
- 레비 브라이언트 (2020), 『존재의 지도』, 김효진(역), 갈무리.
- 로지 브라이도티 (2023), 『포스트휴먼 지식 - 비판적 포스트인문학을 위하여』, 김재희·송은주(역), 아카넷.
- 샬럿 E. 블래트너 등 (2023), 『동물노동 - 종간 정의를 이야기하다』, 평화 등(역), 책공장 더블어.
- 스테이시 앨러이모 (2018), 『말, 살, 흙 -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 김종갑(역), 그린비.
- 애나 로웬하웁트 칭 (2023), 『세계 끝의 버섯』, 노고운(역), 현실문화.
- 이언 보고스트 (2022),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김효진(역), 갈무리.
- 제인 베넷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역), 현실문화.
- 캐서린 헤일스 (2025),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 송은주(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티머시 모턴 (2024), 『어두운 생태학: 미래 공존의 논리를 위하여』, 안호성(역), 갈무리.
- 현남숙 (2025), 「다종 간 도시를 위한 정의의 모색과 실천 - 너스바움의 다종 공동체와 해러웨이의 테라폴리스에서의 다종 간 정의를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17(1).
- 현남숙 (2025), 「인류세의 위기와 다종 간 지식의 요청: 애나 칭, 쏘 반 두렌, 도나 해러웨이의 인간-너머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75.
- Arias-Maldonado, Manuel (2019), "The "Anthropocene" in Philosophy: The Neo-material Turn and the Question of Nature", Frank Biermann and Eva Löwbrand(eds.), *Anthropocene Encounters: New Directions in Green Political Thin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06),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Quantum Entanglements and Hauntological Relations of Inheritance: Dis/continuities, SpaceTime Enfoldings, and Justice-to-Come", *Derrida Today*, 3(2).
- Code, Lorraine (2006), *Ecological Thinking: The Politics of Epistemic 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espret, Vinciane (2013), "Responding Bodies and Partial Affinities in

- Human-Animal Worlds”, *Theory Culture & Society*, 30(7-8).
- Dolphijn, Rick, Tuin, Iris van der (2012),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Open Humanities Press.
- Donaldson, Brianne (2022), “Knowing Life: The Ethics of Multispecies Epistemologies”, (<https://uchri.org/events/knowning-life-the-ethics-of-multispecies-epistemologies/>, 2025년 9월 10일 접속).
- García-Meza, Carlos Jesus, (2021), “A Portable Philosophy Toolkit for the Anthropocene”, Carrillo, Francisco J., Koch, Günter(eds.), *Knowledge for the Anthropocen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Edward Elgar Publishing.
- Lestel, Dominique, Brunois, Florence, Gaune, Florence (2006), “Etho-ethnology and Ethno-ethology”, *Social Science Information*, 45(2).
- Lopez, Andrew (2023), “Nonhuman Animals and Epistemic Injustice”, *Journal of Ethics and Social Philosophy*, 25(1).
- Parker, Dan, Soanes, Kylie, Roudavski, Stanislav (2022), “Interspecies Cultures and Future Design”, *Transpositiones*, 1(1).
- Polt, Richard, Wittrock, Jon (2021), *The Task of Philosophy in the Anthropocene*,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 Price, Catherine, Chao, Sophie (2023), “Multispecies, More-Than-Human, Non-Human, Other-Than-Human: Reimagining Idioms of Animacy in an Age of Planetary Unmaking”, *Exchang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10(2).
- Rantara, Outi, Höckert, Emily, Ilola, Heli (2019), “Knowing-with’ in the Era of Anthropocene”. *Finnish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5(2).
- Solhjo, Niloofar (2024), “Knowing within Multispecies Families: An Information Experience Stud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 Van Dooren, Thom (2014), *Flight Ways : Life and Loss at the Edge of Extin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n Dooren, Thom, Kirksey, Eben, Münster, Ursula (2016), “Multispecies Studies: Cultivating Arts of Attentiveness”, *Environmental Humanities*, 8(1).
- Zaretsky, Adrian (2024), “Interspecies, Multispecies, or Transpecies Design?”, Adrian Zaretsky and Michael Zaretsky(eds.), *Transpecies Design: Design for a Posthumanist World*, Routledge.

Abstract

Cartographing Multispecies Knowledge in the Anthropocene

Hyun, Nam-soo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concept of multispecies knowledge and attempt to map its associated conceptual landscape. It challenges anthropocentric notions of the subject and object of knowledge, demanding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regarding knowledge's methods, content, and ethics. This exploration of multispecies knowledge holds significance in fostering practical awareness for the coexistence of multiple species in the Anthropocene.

Keywords: multispecies knowledge, Anthropocene, relational subject, asymmetrical reciprocity, ethics of response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15일
심사 완료일: 2025년 10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0월 12일